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이 은행 사태 직면 상황에서 미 인플레 6%로 하락
- Bloomberg: 미 채용 공고 절반, 급여 내역 공개

[SVB 사태]

- WSJ: SVB 붕괴로 투자자들 불안감 크게 고조
- Time: SVB 예금, FDIC 보장 한도 이상도 인출 가능
- Atlantic Council: SVB 폐쇄 이후에 무엇을 해야하나?
- Business Insider: SVB 사태의 나비효과, “은행들 줄줄이 파산 가능성”
- Business Insider: SVB사태,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다...”경제 관철을 것”
- WSJ: 어떻게 은행 폐쇄시 당신의 돈을 보호할 수 있나?

[중국]

- Bloomberg: 내일 중국 소매판매 통계, 반등세 보일 듯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기업들, 건물 복구 시 보험료 받기 힘들다...인플레 자재 값 오른 탓
- WSJ: 아시아 스타트업들, SVB사태 이후 “미국 은행 못 믿겠다”
- Bloomberg: 메타, 1만명 감원하고 5천개 일자리 추가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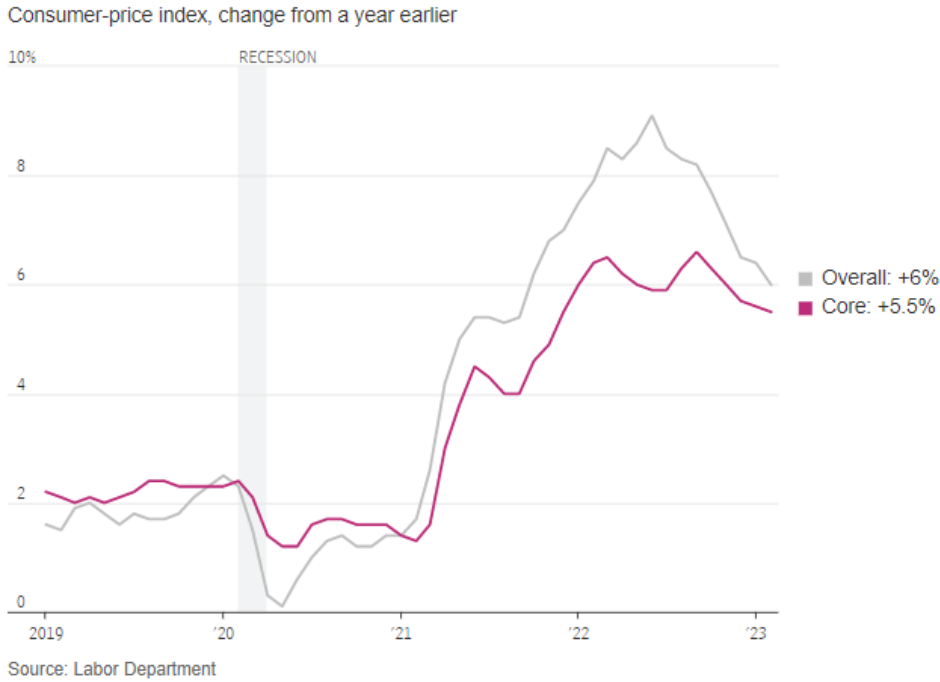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Inflation Pulls Back to 6% as Fed Confronts Bank Failures 연준이 은행 사태 직면 상황에서 미 인플레 6%로 하락

- 연준이 두가지 위협 즉, 물가 상승과 최근의 금융 불안정에 직면한 가운데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가 2월에 둔화하였다.
-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해, 1월 연간 상승률 6.4% 보다 하락했다고 연방 노동부는 화요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속도.
- 변동성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2월에 작년 동월 대비 5.5% 상승해, 1월의 연간 상승률 5.6%보다 하락했다. 근원 물가지수는 향후 인플레를 측정하는데 더 좋은 지표.
- 월별로는 1월보다 2월에 0.4% 인상, 1월 인상률 0.5%보다 낮았다. 근원 물가 월별 지수는 1월 0.4%에서 2월에 0.5%로 약간 올랐다.



WSJ 기사

Bloomberg: Almost Half of All US Job Postings Include Salary Information Now

미 채용 공고 절반, 급여 내역 공개

- 콜로라도주가 2021년 첫 번째로 임금 공시법을 제정한 이후, 최근 몇 달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에서 임금 투명성 법이 시작하면서 미 전국적으로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는 추세가 커지고 있다.
- 급여 데이터 분석 사이트 Comprehensive.io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공고의 약 75%, 캘리포니아의 66%가 급여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4%로 3년 전의 18%에 비해 크게 늘었다.
- 이는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뉴저지, 일리노이, 켄터키 등 약 12개 주에서 유사한 규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씨티그룹, 구글 등 주요 고용주들이 구인 공고 시 연봉 정보를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급여가 명시되어 있으면 구직자들이 지원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SVB 사태]

WSJ: Investor Anxiety Hits a Fever Pitch After Silicon Valley Bank Collapse

SVB 붕괴로 투자자들 불안감 크게 고조

- 투자자들은 계속되는 주식 시장 둔화 가능성을 맞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난주 3개 은행의 폐쇄 조치로 최근 주식, 채권, 파생 시장의 변동성이 악

화하고 있다.

- 모든 주식과 상장지수펀드의 풋옵션 거래량이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투자자들은 국채나 금과 같은 전통적으로 안전한 자산에서 피난처를 찾거나 보다 광범위한 은행 부분에서 더 많은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 다행히 이번 사태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당분간 중단 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주식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오늘 화요일 발표된 물가 둔화 지표 때문에 주식은 전반적으로 12:00에 2% 상승세로 거래되고 있다.

WSJ 기사

Time: Silicon Valley Bank Clients Will Get Funds—Even Those That Weren't Insured, Government Says SVB 예금, FDIC 보장 한도 이상도 인출 가능

- 연방 정부는 SVB(실리콘밸리)의 모든 고객은 이번주 월요일인 13일부터 예금 인출이 가능하고 특히 FDIC(연방 예금 보험 공사) 보장 \$250,000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도 인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연방 재무부와 연준,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일요일 공동 성명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예금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계와 기업에 신용 접근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도 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려 했다.
- SVB의 최근 문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은행에 보관된 1,750억 달러를 막았는데 중 약 85%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준은 은행 고객을 보호하고 다른 소규모 및 지역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을 위한 새로운 대출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 당국은 또한 미국인 납세자가 이 은행 폐쇄와 관련된 손실에 대한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공동 성명은 또한 이 은행 경영진은 해고될 것이며, 규제 당국들이 폐쇄된 뉴욕 시그너처 은행의 예금자들에게도 유사한 보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정부 움직임은 월가와 실리콘 밸리의 일부 관계자들이, 구좌에 25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잃거나 또는 은행 자산이 풀리는 동안 자금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묶여 있게 된다면 SVB의 붕괴 때문에 더 큰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나온 대응이다.
- SVB는 기술 스타트업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많은 기업이 은행에 수백만 또는 수천만 달러를 예치하였다. 40여년전 이 은행의 발족된 미국서 16번째로 큰 은행이라 파장이 컸다. 엘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일요일에 상황을 안심시키려고 “구조적인 위험 파장은 없을 것이다”라며 미국 경제가 건전한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태 원인]

- 발생 원인과 관련해 2021년 Tech 기업들이 호황기 상당수 예금을 SVB에 맡겼고, 이를 SVB는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에 투자했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고객 기업들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예금을 인출해 버렸다. 이

에 SVB는 예금 적립금으로 장기 채권에 주로 투자했는데 갑작스런 인출 사태를 카버하기 위해 손실을 보며 18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각 할수 밖에 없게 된 것. 이 은행의 많은 자산은 채권과 모기지 보증 주식인데 금리 인상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 또다른 사태 원인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주식 하락으로 특히 기술 회사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해고가 이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즉, 이 은행은 주로 기술 근로자와 벤처 자본에 의존한 회사들을 서비스 하고 있지만, 옐런 장관은 “이 은행 파산은 주로 고금리가 주요 원인이지 기술 산업 관련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옐런 재무장관의 대응 방향]

- 옐런 장관은 이번 정부 대응은 2008년 금융 위기 때와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때는 가장 큰 주요 은행들을 구제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금자의 우려와 요구에 가장 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
- 그녀는 규제 당국이 다른 기관에 의한 SVB 매입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것. 현재 어떤 기관도 매입 하려는 입장이 없지만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은행의 투자 बैं킹 부문인 SVB Securities가 매입하는 방안들을 검토중이다.

[예금자 보호]

- 현재 투자자들과 의원들이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다른 은행들의 타격을 보호하라는 요구함에 따라 예금자들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인 Eric Swalwell은 “25만불이 넘는 모든 예금도 보호해야 한다. 은행들은 신뢰를 말하지만 이같은 예금자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 수십억 헤지펀드 투자자인 Bill Ackman도 경고했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며 ‘너도 나도 인출하는 बैं크 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 바이든은 이에 대응, 이번주 월요일에 “예금자들이 보호되고, 은행들에 예금한 작은 기업들은 봉급 지불과 회사 운영하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ime 기사

Atlantic Council: Silicon Valley Bank failed: What happens next? SVB 폐쇄 이후에 무엇을 해야하나?

- 사태 직후 연준은 미국 국채, 기관 및 모기지 담보 증권과 같은 우량 담보에 대해 시장 가치 대신에 액면 가치로 최대 1년 동안 은행 및 기타 예금 기관에 대출할 수 있는 새로운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를 발표했다.
- 새로운 BTFP는 은행이 보험료로 지불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기금 1천2백50억 불 외에 연방 재무부의ESF(외환안정기금)에서 2백50억 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 규제 기관은 이 은행과 이어 폐쇄된 뉴욕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자들은 인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지만 미국과 전세계의 금융 시장 안정화에는 실패했다.
- BTFP 제공은 은행들이 계좌당 FDIC 한도 25만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예금자에게 상환하기 위해 시가평가 손실없이 연방 재무부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 안정화에는 실패했다.
- 긴급한 시점에서 볼때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대규모 예금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릴 경우에 심지어 액면가라 할지라도 담보로 사용할 우량 채권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찌 될 것인가?
- 연준은 현재의 가이드를 느슨하게 처리해, 기업 채권과 같은 우량 채권이 아닌 것도 담보로 사용해서 BTFP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 연준은 큰 예금자가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예금자들은 우려하고 더 든든한 은행으로 옮기게 된다.
- 둘째로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려면 은행에 부과되는 보험료 측면에서나 또는 공적 자금 사용 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금보험 보장을 위한 명확한 한도를 정해야 하는데 이 한도를 넘을 경우 대규모 예금자는 파산한 은행의 청산에서 얻은 금액에서만 받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한 예는 2008년 파산한 IndyMac 케이스다. 큰 예금자는 이 당시 50만불만 받았고 나머지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했다.
- 셋째로, 금융 당국은 저금리로 오랫동안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이 갖고 있는 막대한 양의 채권에 대한 시가 평가 손실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넷째,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은행 고객들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예금을 단기금융시장뮤추얼펀드(MMMF)로 옮겼다. 은행은 이자율을 올리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이자 마진이 줄면서 수익도 감소했다. 취약한 은행일 수록 예금 인출이 커 은행 시스템을 일부가 불안정하다.
- 마지막으로, 2008년 금융 위기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Dodd-Frank법이 발표했다. 엄격한 보고 의무화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은행들은 받아야 하는데, 자산이 5백불 미만의 은행에게는 면제했다. 트럼프 때 와서 이런 요건의 면제 은행들을 자산 2천5백억달러 미만 은행까지 면제했다. 현재는 이런 요구 조건 적용 은행은 12개 대형 은행 뿐이다 결국 작은 은행들의 취약성은 더 커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설사 3개 은행 폐쇄 여파가 회복된다 해도 미국과 세계 금융 안정 리스크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 당국들은 의회와 협의해 금융 규제 방안을 강화하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tlantic Council 기사

Business Insider: It's crystal clear now: More banks are going to fail
SVB 사태의 나비효과, “은행들 줄줄이 파산 가능성”

- 실리콘밸리뱅크의 폐쇄 이후 산업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 William Issac 전 연방 예금보험공사 대표는 이번주 일요일 인터뷰에서 16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은행 위기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은행이 붕괴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근거는?
- 첫째,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가능성에 소규모 지방 은행들의 주가가 이미 요동치고 있다. 변동성 급증으로 인해 Western Alliance의 주식 거래는 3월 10일 이후 20차례 중단되었고, PacWest은 11차례, First Republic은 13차례 중단되었다.
- 둘째, 지난 주말 엘런 재무장관의 발표, 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과 같은 구제금융을 지급할 생각이 없으며, SVB의 추락을 내버려둘 것으로 보인다.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쓰는 일은 더이상 없다는 것. 바이든은 “그것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라고 밝혔다.
- 셋째, 투자자들 사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급속도로 불안감이 퍼지면서 SVB가 말그대로 하루아침에 폐쇄에 이르렀다는 점도 디지털 뱅킹 시대 연이은 은행 파산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는다. SVB의 고객들은 목요일 하루동안 4백20억 달러의 예금을 인출했는데, 지난 대 금융 위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Washington Mutual은행에서 10일간 1백 67억 달러가 인출된 것과 비교되는 속도이다.
- 사람들은 2022년 FTX가 붕괴했을 때 전통적인 금융계에서는 그런 속도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SVB 사태는 앞으로 어떤 다른 은행이라도 정말 순식간에 손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Business Insider 기사

Business Insider: Relax, SVB's implosion is nothing like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economy will be fine SVB사태,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경제 괜찮을 것”

- SVB의 파산 이후, 2008년 수백만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이 10%에 달했던 경제 대공황을 떠올리며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10년 반 전과 매우 다르며,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역시 존재한다.
- 첫째, 오늘날의 미국은 더 엄격한 은행 규제를 가지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은 미래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 요구사항과 수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SVB 규모의 은행들은 트럼프 집권 시기 예외적으로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적어도 미국의 12개 대형 은행은 여전히 해당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 둘째, 연방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 정부가 SVB에 이어 Signature Bank까지 완전한 예금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은행들이 맞을 여파를 줄였다. 이는 연쇄적인 여파로 더 큰 규제금융이 필요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셋째, 미국의 4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웰스 파고는 각각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 스타트업에 크게 의존했던 2천 90억달러 규모 SVB에 비해 아주 강력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현재 SVB의 자산을 매입할 기관을 찾고 있다. 이로써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
- 마지막으로 단단한 주식 시장이 버티고 있다. 월요일 오후까지 보아도 안정적인 S&P 500지수는 투자자들이 SVB 여파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usiness Insider 기사

WSJ: How to Protect Your Money From a Bank Collapse 어떻게 은행 폐쇄시 당신의 돈을 보호할 수 있나?

연방정부가 FDIC가 보장하는 한도 25만불 이상 예금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형 예금자는 향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 FDIC가 보장할 수 있는 인출금은 25만불까지 이므로 여러개의 계좌를 가져야 한다. 똑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체크 및 저축 계좌는 서로 다른 계좌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동 구조와 개인 구조가 따로 따로 보장된다. 물론 자녀들을 위한 보호자 계좌(custodial accounts) 개설도 효과적이다.
2. 계좌 소유자가 사망할 것에 대비해 자금을 상속할 특정 사람 또는 비영리 단체를 지정하는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다.
3. FDIC 보장 한도를 늘리는데 필요한 여러 계좌를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다. IntraFi Network LLC와 같은 '예금 교환 네트워크'(Deposit swapping networks)는 여러개의 은행과 협력하여 큰 예금을 연방 보험 한도 미만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잔액을 보호할 수 있다.

WSJ 기사

[중국]

Bloomberg: China's Official Data Likely to Show Economy Strengthening 내일 중국 소매판매 통계, 반등세 보일 듯

-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내일 수요일 발표되는 중국 정부의 올해 첫 두달간 소매판매, 산업생산, 투자에 대한 공식 데이터에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이코노미스트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2월 소비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하며 12월 1.8% 감소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 산업생산 전망은 불투명하나,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공장 생산량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12월 1.3%보다 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고정 자산 투자의 성장률은 2022년 5.1%에서 4.5%대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Consumption Rebound

China's retail sales is seen picking up in the January-February period

Retail sales growth Forecast



Source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Bloomberg
Note: Jan.-Feb. 2023 figure is median estimate in a Bloomberg survey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Inflation Means Businesses Face Insurance Woes When Rebuilding 기업들, 건물 복구 시 보험료 받기 힘들다...인플레로 자재 값 오른 탓

-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화재나 허리케인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건물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1년 주기로 보험을 든다. 그런데 높은 인플레로 인해 건축 자재 값이 오르면서 재난 후 건물 재건 비용을 충분히 보장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기업들이 자사 건물 가치를 평가한 것과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 사이에 불일치가 클 경우 예상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 갱신을 마주할 수 있다. 보험사들 역시 물가 상승으로 2022년 지출 금액이 약 3백20억 달러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은 단순히 보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홍수 방지 대책을 세우고 건물 내화재를 보강하는 등 애초에 재난으로 인한 건물 손상을 피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WSJ 기사

WSJ: Asian Startups' Confidence in U.S. Banking Wanes After SVB Panic 아시아 스타트업들, SVB사태 이후 “미국 은행 못 믿겠다”

- SVB 사태 이후 중국, 싱가포르, 인도에 이르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반향을 일으키며 미국의 테크 금융에 대한 아시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SVB는 특히 생명공학 분야의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아시아 스타트업들에게 인기있는 중요한 자금 조달 채널로 여겨졌었다.
- 하지만 SVB의 붕괴 이후 기업들은 “한 기관에 많은 자본이 집중되거나, 단일 자금 조달 수단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의존도를 재검토하며 자국의 은행으로 돈을 옮겨오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Meta to Cut 10,000 Jobs, Eliminate 5,000 More Vacant Positions

메타, 1만명 감원하고 5천개 일자리 추가 정리한다

- 메타 플랫폼이 이번주 화요일 성명을 통해 “메타는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채용을 늦추고 있다”면서, 2차 감원을 통해 약 1만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약 5천개의 열린 일자리를 닫을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 조직 평준화를 위해 일부 중간 관리자를 없애고 개별적으로 업무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CEO Mark Zuckerberg가 회사의 재무 실적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를 “효율성의 해”로 명명한 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WhatsApp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면서 지난 1년간 투자의 초점을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분야로 옮겨왔다. 이러한 조치는 월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들어 60% 가까운 주가 상승을 이루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폭스바겐, 캐나다에 북미 첫 배터리 공장... 美 IRA 보조금 겨냥"

"2027년 생산 시작"...캐나다 장관 "캐나다 위한 홈런" 환영"

독일 자동차그룹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북미지역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자사의 배터리 회사 파워코와 함께 온타리오주 세인트토머스에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을 세워 2027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배터리 공장은 폭스바겐이 해외에 설립하는 최초의 '기가 팩토리'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